

전남도, CES 첫 참가해 1억7800만 달러 수출협약

글로벌 벤처투자자 초청 신기술발표회도 열어 도전·창업 지원으로 K 에너지밸리 비전 제시도

전남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정보통신(IT) 전시회인 '소비자 전자제품 전시회(CES)'에 첫 참가해 1억7800만 달러 규모의 수출협약 성과를 거뒀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24 CES에 전남관을 운영, 지역 11개 기업의 혁신제품과 기술을 선보이고, 22개국 바이어와 2억1300만 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전남관은 전시관(Westgate) 내 216㎡ 규모로 조성됐고, 에너지 분야에서는 비케이에너지, 누리플렉스, ㈜티디엘, ㈜칼산, 디지털헬스 분야에선 ㈜휴먼아이티솔루션, ㈜소프트웨어 융합연구소, 스마트팜 분야에선 아이티컨버전스㈜, 아이오티플러스㈜, 탄소제로 분야에선 ㈜로우카본 등이 참여했다.

이들 가운데 재생에너지100(RE100)·탄소제로·인공지능(AI) 3개 기업은 미국, 캐나다, 나이지리아, 버뮤다 등 6개국 바이어와 1억7800만 달러 상당의 수출협약을 맺었다. AI기반으

로 혈액을 채취하지 않고도 혈당측정이 가능한 제품을 개발한 ㈜소프트웨어융합연구소는 미국 바이어와 230만 달러 수출협약, 홍콩 바이어와 기술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비케이에너지의 회전식 수상 태양광은 고정식보다 에너지 효율성이 10% 이상 높고, 고장률을 획기적으로 줄인 점이 높게 평가받으면서 3개국 바이어와 1억7000만 달러의 수출협약 성과를 올렸다.

전남도는 11개 기업 부스 모두를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미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김, 배추스, 유자주스 등 전남 특산품을 제공해 큰 관심을 받았다. 2025년에는 김밥·김치 등 전남의 음식문화를 홍보할 방침이다.

전시회 기간 중 글로벌 벤처 투자자를 초청해 신기술 발표회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전남의 혁신기업 11개 사는 자사의 신기술을 소개하고, 투자 유치를 위한 교류 활동을 펼쳤다. 전남기업의 글로벌 혁신 성장을 지원키로 한 플러그앤플레이(PNP)는 휴먼아이티솔루션



김영록 전남지사(가운데)가 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소비자 전자제품 전시회(CES)' 전남관 개관식에 참석, 전남도의 글로벌 미래비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발표 후 유명 중견기업 S사를 소개, 두 기업의 국내외 공동 사업 추진 발판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포스코, 삼성, LG, 현대차, 기아차, HD현대, 쏘니 등 글로벌 기업 관계자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데이터센터, AI 첨단 농기계, 모빌리티 제조, 수소 등 신에너지 분야 투

자유치와 업무협력을 논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 기업의 치열한 도전과 혁신이 세계시장에서 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며 "앞으로도 많은 혁신기업이 해외 진출을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까지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하세요”...22만명에 年60만원

전남도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15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신청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는 도민이다.

다만 연간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익수당 지급을 바라는 농어업인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지급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시·군에서는 지급요건 확인 등을 거쳐 3월 말 지급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고 도는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농어민에게 공익수당 60만 원을 4월에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정광현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공익수당 지원책이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요건을 갖춘 농어민이 지급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수권 기자



전남개발공사,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가입

전남도의 유일한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가 지속가능경영 강화를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UNGC)에 가입했다.

UNGC는 세계 최대의 자발적 기업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자율협약)로 기업이 인

권·노동·환경·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준수하도록 지원하고자 유엔에서 2000년에 발족한 국제협약이다. 현재 전 세계 167개국 2만 3천여개 회원사가 지속가능성 확보와 기업시민의식 향상을 목표로 참여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한국연립진흥재단
Korea Twin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해를 넘어서 재인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연도	보험료 납부액 (원)	보험료 대비 혜택 배수
2011년	240,833원	1.1배
2012년	125,531원	1.7배
2013년	79,147원	2.1배
2014년	48,103원	2.7배
2015년	26,697원	5.3배
2016년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서울시 129

국민건강보험
Korea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고객센터 1577-1000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광주 월드컵경기장·첨단 1·2단지 태양광시설 구축 “에너지 전환 속도” 시민햇빛발전소 설치...최대 2억원 지원

광주시가 월드컵경기장 주차장과 첨단 1·2단지에 중대형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구축한다.

광주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중대형 규모 태양광발전시설과 시민햇빛(태양광)발전소 설치 사업에 속도를 낸다

고 14일 밝혔다. 중대형 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은 서구 월드컵경기장 주차장(2.3MW)과 첨단1·2산업단지(8MW)에 설치된다.

광주도시공사와 협업체 오는 2월 총 46억원을 투입해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 0.5MW 규모의 1단계 구간을 설치한 뒤 12월 1.8MW 규모의 2단계 구간을 완료한다.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 태양광시설이 완료되면 연간 3022㎾h의 전력이 생산될 전망이다. 830여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량이며 연간 온실가스 약 1426t이 감축되는 효과가 있다.

첨단국가1·2산업단지에는 내년 12월까지 총사업비 320억원을 투입해 에너지 자급자족 기반시설이 설치된다.

태양광 설치와 함께 고효율 저소비 에너지 효율화 설비교체, 전기차 충전시스템 구축, 에너지 통합관리 플랫폼 등을 구축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지원한다.

에너지 자급자족 기반시설이 완료되면 첨단산업단 내 연간 전력사용량 대비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39GWh에서 47GWh로 증가해 산단 내 전력자립률이 9.23%에서 11%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광주지역 에너지협동조합 33곳이 참여하는 시민햇빛(태양광)발전소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사업제안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 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1곳당 최대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시민햇빛발전소는 지난 2021년부터 지금까지 용연정수장, 전자공고 등 11개소 부지에 총 3.7MW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했다.

광주시는 또 에너지전환 속도를 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1078개소에 총사업비 87억원을 투입해 태양광 3.7MW, 태양열 293㎡ 등을 설치 추진한다.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를 주택, 건물 등에 설치해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광주시 손인규 기후대정책과장은 “광주는 지난 2020년부터 가정·산업·수송·공공 등 전 분야에 걸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최석연 기자